

한국인의 가족가치:^{*} - 5개국 비교연구 -

은 기 수^{**}

I. 서론	VI. 가족가치 2: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치
II. 기존연구검토	VII. 가족가치 3: 자유로운 성 매춘 및 동성
III. 연구주제 및 연구가설	애에 관한 가치
IV. 연구자료, 변수 및 분석방법	VIII. 가족가치 4: 여성의 일에 관한 가치
V. 가족가치 1: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가치	IX. 결론

I. 서론

한 사회에는 가족이란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고, 가족에 관한 다양한 가치가 있다. 가족에 관한 여러 영역에서 서로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여러 다양한 가치와 태도가 있다.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가족이라는 제도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만 형성되어야 하는가? 누구나 다 결혼해야 하는가? 한번 형성된 가족은 일생동안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가족의 생계는 누가 주로 책임져야 하는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결혼한 후에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을 부양할 책임을 지는가? 반대로 자식은 노인이

* 이 연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년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한국학 전공.

된 부모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는가? 각 사회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 자식 관계, 성과 결혼, 이혼과 재혼, 남성과 여성의 역할, 여성의 일 등 여러 측면에 걸쳐 가족에 관한 규범과 가치가 존재한다.

가족이 변하듯이 가족에 관한 규범과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전통시대의 가족과 근대의 가족이 다르듯이 전통시대의 가족에 관한 가치와 근대사회의 가족의 가치는 다르다. 근대사회의 근대가족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가족의 구조도 변하고, 가족가치도 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가치는 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가족가치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부모-자식 관계, 성과 결혼, 이혼과 재혼,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있는 가족가치는 하위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빨리 변하는 가치도 있고, 잘 안 변하는 가치도 있다. 예를 들면 출산력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상자녀의 수 같은 가족가치는 짧은 시간동안에 크게 변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외 성관계 같은 경우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도, 잘 변하지 않는 가족가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가족가치는 성, 연령, 교육 수준, 종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가족가치는 그런 요인에 따른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그 가족가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만약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가 없다면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가족가치가 모두 변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변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제도와 가족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로 한정되고,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여성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받아들여지고, 실제로도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어떤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가

치의 영역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식관계, 결혼과 이혼, 성, 여성의 일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가치에 사회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이미 한국은 세계적으로 세대간 가치관의 변동이 가장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의 이행을 강조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한국의 세대간 가치변동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례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¹⁾ 이 연구는 잉글하트의 주장대로 한국의 세대간 가치변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가치관 변동을 한국 사회에만 국한해서 보지 않고 한국의 가치변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종교 및 종교와 관련된 태도, 행위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다. 종교는 한 사회의 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종교는 한 사회의 가치관을 지속, 유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즉 가치관의 변동을 주도하기 보다는 기존 가치관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속성이 더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매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종교마다 개인에게 갖는 영향력이 균등하지 않는데, 종교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 및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가치에 일반적으로 차이를 낳는 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종교 및 종교에 관련된 요인이 어떤 차이를 낳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세계 5개국의 가족가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검토

가족가치는 학문적인 관심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족가치는 선거기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쟁점의 하나가 되어 있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의 공화당은 1950년대의 미국 가족을 전통가족이라고 규정하면서 1950년

1)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145-146.

대 미국 가족 및 가족가치를 회복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가족가치를 선거캠페인으로 이용한 공화당은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 공화당의 입장처럼 미국에서 전통가족과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가족사회학자는 파피노우(David Popenoe)이다. 파피노우는 부모 및 그들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1950년대의 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20세기 후반 이혼의 증가로 양부모 및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미국 사회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²⁾ 전통가족 및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 보아도 1950년대의 미국 가족은 전통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역사에서 특수한 가족이라고 보아야 하며,³⁾ 미국의 가족은 하나의 대표적인 가족(The Family)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⁴⁾ 남성이 중심이 된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⁵⁾ 이 중에서도 파피노우의 주장에 가장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개진한 학자는 스테이시(Judith Stacey)이다. 스테이시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족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탈산업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분해, 변형되고 있으며,⁶⁾ 이러한 가족은 결코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이고 따라서 이들이 지닌 가족가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가치관이라고 주장한다.⁷⁾

2) Popenoe, David,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Aldine de Gruyter, 1988).

3) Coon, Stephanie,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Basic Books, 1992); Skolnick, Arlene S., *Embattled Paradise: The American Family in an Age of Uncertainty*(Basic Books, 1991).

4) Skolnick, Arlene S. and Jerome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 Ninth Edition (Longman, 1997).

5) Thorne, Barrie,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2).

6) Stacy, Judith,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Basic Books, 1990).

7) Stacy, Judith,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Beacon Press, 1996).

전통가족 및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 가족에 관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10 대에 혼전성관계가 늘어나면서 미혼모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연구⁸⁾에서부터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가족가치의 영향을 받아 집에 돌아오면 다시 2교대(second shift)의 노동이 시작된다는 기념비적인 연구,⁹⁾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소멸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를 논한 연구¹⁰⁾ 등 광범위한 연구주제에 기반하여 가족 및 가족가치의 변화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시각을 달리하지만, 잉글하트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한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다는 명제를 내걸고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다.¹¹⁾ 한국에서도 잉글하트의 명제에 따른 연구가 어수영에 의해 수행되었다.¹²⁾ 그러나 가족가치의 변화가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변화를 반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발전보다는 환경, 개발보다는 보존,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가족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어수영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변화하는 가족관계, 가치변화와 성의 개방 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족가치의 변화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증명하는 핵심주제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본래 잉글하트가 내걸었던 명제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과 노동, 환경, 국가, 경제발전 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문제영역이다.

8) Furstenberg, Jr. Frank F., J. Brooks-Gunn and S. Philip Morgan, *Adolescent Mothers in Later Lif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9) Hochschild, Arlie, *The Second Shift* (Avon Books, 1989).

10) Goldscheider, Francis and Linda Waite, *New Families, No Famil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11) Inglehard,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Inglehard,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12) 어수영,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연구』(이화여대출판부, 1997).

은기수는 잉글하트의 명제에 따라 물질적인 가치관과 탈물질적인 가치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몇 나라의 가치관 비교연구를 통해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의 구분이 가치관의 변동과 차이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변수인지를 검토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¹³⁾

최근 잉글하트는 베이커와 함께 쓴 글에서 세계의 가치관 변동의 방향은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이행이 분명하지만 종교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⁴⁾ 이러한 논의는 모든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동이 일률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치관의 변동의 양태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변동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가족이라는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인 가치관으로의 이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은기수의 연구에서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의 구분이 모든 가치관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언제나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가치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는 잉글하트가 중심이 되어 만든 자료를 사용한다할지라도 잉글하트의 물질적/탈물질적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하기보다는(예컨대 어수영의 연구(1997)) 오히려 성, 연령, 교육 수준과 같은 기존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최근의 잉글하트의 논지를 받아들여 잉글하트가 택한 종교라는 변수의 유용성을 한국의 상황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주제 및 연구가설

이 연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 가족가치에 대한 세계 5

13) 은기수,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4) Inglehard,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2000), pp. 19-51.

개국의 비교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의 가족가치를 다룬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다. 부모는 자식을 어느 정도까지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가? 다른 한편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관은 가족가치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1995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식에 관해 여러 가지 문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항목은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다 해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와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존경할 만하지 않다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의무가 없다”의 두 문항 가운데 어느 쪽 의견이 가까운지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 항목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문항과 “부모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며 자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의 두 문항 가운데 응답자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물어보고 있다. 그 외에도 자녀들의 집에서 배워야 할 항목이 예절, 근면, 독립심, 책임감 등등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이 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에 관해서는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93% 이상이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다 해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사이에 응답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관한 설문에서는 두 문항에 대한 찬성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에 여러 변수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문항인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및 부모의 독립적인 삶이라는 설문항을 이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룰 두 번째 가족가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족가치이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가족의 형성이 꼭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반면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거나,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혼자 살면서 얻는 이익보다 작다면 굳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은 낡은 제도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이혼에 대한 의견을 묻은 문항을 통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다룰 가족가치는 성에 관한 가치관이다. 일반적으로 성은 가족 내에서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성에 대한 가치 및 규범은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성이 결혼 내에서 이성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많은 사회가 받아들이고 규범화하고 있지만, 사회에 따라서는 성에 관한 가치와 규범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성관계 매춘 및 동성연애에 관한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네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가족가치는 여성의 일에 관한 가치이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족의 대부분은 남성 위주의 가족이다. 부부사이에 평등성이 제고된 서구 사회라 할지라도 아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배적인 가족의 모습을 띄고 있다. 남성이 지배적인 가족 내에서는 대개 남성이 가족 성원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맡고,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성들의 독립성이 증대하면서 남성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여성들이 자아실현과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가족에 대한 가치 및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가족가치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계 5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존하는 사회의 가족이 남성 중심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가치의 많은 부분이 남성을 중심으로 또는 남성에 유리한 가치관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녀평등적인 가족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말해 가족가치는 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동시에 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이 든 층은 아직도 남성 위주의 가족가치를 지지하지만 젊은 연령층으로 올수록 나이 든 층이 지지하는 가족가치와는 다른 가족가치를 수용하는 경향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가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가치관 변동의 원인의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람들은 타자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노출된다. 또 어느 사회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방된 사회를 전제로 타자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족가치의 측면에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넷째, 종교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종교가 앞장서서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종교인보다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더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모든 종교가 동일한 정도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특히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은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개신교가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족가치에 관해서도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기존의 가치관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섯째, 최근 종교에 관한 몇 연구¹⁵⁾는 종교 자체도 가치관 및 행위에 차별성을 낳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한 개인이 종교를 인생에서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치관 및 행위에 차별성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가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가정한다.

일곱째, 종교가 갖는 의미와 별도로 종교에 열심인 정도가 가족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종교가 인생에 갖는 의미가 클수록 종교에 열심일 수 있지만 종교가 인생에 갖는 의미와 별도로 종교가 가족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종교의 열심도에 따라 가족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15) 은기수·노희정·하현애, 「안락사, 낙태, 자살과 종교: 세계 5개국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2001); 이혜정·은기수, 「종교적 배타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2001).

여덟째, 위에서 설정한 가정들이 모든 사회에 일정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가치 또한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의 이행을 주장한 잉글하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한 스웨덴의 경우 가장 탈물질주의적인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경제발전의 정도가 가장 낮고,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신자인 브라질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세대간 가치변동이 심하지만 가족에 관한 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경제발전의 단계가 높고 오래 전부터 근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서구사회의 일원이지만, 다양한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종교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및 브라질보다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스웨덴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IV. 연구자료, 변수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잉글하트가 수집한 1995년 세계 가치관 조사원자료를 활용한다. 세계 40여개국이 참가한 세계 가치관 조사는 동일한 시점에 각 사회마다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이전에 이루어진 자료와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가치관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 및 1995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 참여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어수영과 은기수의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국내에서 거의 본격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다. 현재 필자가 확보한 자료는 1990년의 한국 자료 및 1995년의 세계 자료가

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연구가 가능한 1995년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 중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개국의 자료를 활용한다.

어수영의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및 멕시코를 선택해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반면에 은기수는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멕시코, 서독, 미국, 스웨덴, 스페인 등 9개국을 선택해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개국을 선택해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5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 종교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기 때문에 각국의 종교분포를 염두에 두고 분석대상국가를 골랐다. 먼저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일정 부분 유교를 공유했다 할지라도 매우 상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측면에서 현대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이 매우 커진 반면, 일본은 불교 및 무종교의 영향이 강하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은 여전히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다. 미국은 서구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이면서 한편으로 아주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고, 문화 또한 다문화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비교분석의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가족가치가 매우 진보적인 성격을 띤 국가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개신교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5개국 가운데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제일 낮지만 지난 1960년대 이래 권위주의적 경제발전을 경험한 국가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국가이다. 그렇지만 종교의 측면에서 천주교가 지배적인 국가로 종교가 가족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번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응답자의 특성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변수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의 네 가지 측면이 분석된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되는 가족가치가 여러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가치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문항과 “부모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며 자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희생되어서

는 안된다”라는 문항이 종속변수가 된다. 응답자들은 이 두 문항 가운데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문항을 선택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측정했다. 이 설문항은 두 문항 가운데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짓분석을 수행했는데, 로짓분석에서는 “부모도 자신들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를 선택한 확률을 구했다.

두 번째 가족가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족가치이다. 결혼에 관해서는 “결혼은 낡은 제도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기술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이 진술에 찬성하는 비율을 구했다. 로짓분석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비해 찬성하는 확률을 구했다.

이혼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부터 “언제나 정당화된다”까지 10 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기술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1 점부터 3 점까지를 반대의 입장으로 재범주화해서 이혼에 대한 반대 비율을 구했다. 분석적인 수준에서는 이 변수가 연속변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했다.

세 번째 가족가치는 자유로운 성관계, 매춘, 동성연애에 대한 가치이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관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이나 관습의 구속을 떠나 누구에게나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변수는 “찬성”, “반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비율을 구했다.¹⁶⁾ 매춘과 동성연애의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부터 “언제나 정당화된다”까지 10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점부터 3점까지 묶어 반대비율을 구했고 분석적인 수준에서는 연속변수로 간주해 회귀분석을 했다.

네 번째 가족가치는 여성의 일에 관한 가치이다. 여성의 일은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문항과 “주부의 일은 직장인의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설문항을 이용했다. 전자의 경우 “찬성”, “중

16) 미국의 경우 이 설문에 대해 두 가지 척도로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미국은 제외한다.

립”, “반대” 등 세 가지 척도로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다. 기술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을 구했다. 후자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 “찬성”,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찬성”과 “찬성”을 하나로 묶고, “반대”와 “전적으로 반대”를 또 하나로 묶어 두가지의 척도로 재구성했다. 기술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역시 찬성하는 비율을 구했다. 두 설문항 모두 로짓분석을 시행해서 찬성하는 확률을 구했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성이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10살 단위로 재범주화했다. 교육 수준은 세계 비교연구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각국의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비교연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5개국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1. 초등학교이하 2. 중고등학교, 3. 전문대이상 학력 등 세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교육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의 하나는 종교이다. 각국의 종교분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종교를 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한국의 종교는 무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등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종교는 무종교, 불교, 기타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무종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의 네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스웨덴은 개신교, 천주교, 기타의 세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무종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의 네 범주로 종교가 이루어져 있다.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는 “아래 사항들은 귀하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4. 대단히 중요하다”로 재범주화한 후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종교열심도는 “선생님은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1. 대단히 열심”부터 “7. 거의 참여하지 않음”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항을 이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1. 거의 참여하지 않음”부터 “7. 대단히 열심”까지로 척도를 조정한 후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결혼 상태와 계층의식을 이용했다. 결혼 상태는 미혼, 유배우, 이

혼, 사별 등 네 가지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계층의식은 주관적인 계층의식으로 상/중상, 중하, 하상, 하 등 네 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세계 가치관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어수영¹⁷⁾의 연구는 단순빈도분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도 어수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단순빈도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단순빈도분석은 특히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에 교육 수준이 급상승하는 등 사회변동이 급격한 사회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령의 효과와 교육의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로짓분석을 시행했다. 이 연구는 SAS의 REG 및 LOGIST procedure를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V. 가족가치 1: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가치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분석결과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다” 문항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문항을 고른 비율이 세계 5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일본으로 56%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표적인 서구사회의 하나인 스웨덴은 72%의 응답자가 부모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모의 의무를 강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응답자의 84%가 이 문항을 선택했다(부표 2 참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가족이기주의 등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17) 어수영, 앞의 책(1997).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 부모의 희생이 강조되는 문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로짓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5개 국가 중 성,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모의 삶보다는 부모의 희생을 택한 경우가 1.3배에 이른다. 연령별로도 나이 든 층일수록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반면 젊은 층은 부모도 자신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나누어보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부모들 자신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은 젊은 층에 비해 나이든 층이 오히려 부모들 자신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준거범주인 불교에 비해 무종교인들이 부모들의 삶을 약간 더 강조하고, 브라질은 반대로 준범주인 개신교에 비해 무종교인들이 부모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종교가 인생에서 가지는 의미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5개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이 가장 가치관의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종교가 인생에 갖는 의미에 따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에서도 역시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비단 한국이나 브라질 뿐만 아니라 미국과 스웨덴에서도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나 브라질과 같이 아직 탈물질적 가치

관으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어 부

<표 1> “부모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를 선택한 오즈비(odds-ratio)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1.3 **	0.9	1.0	1.3	1.4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1.7 ***	1.5	2.0 ***	0.5 **	1.7 **
	40-49	2.1 ***	0.8	1.3	0.6 **	1.4
	50-59	2.4 ***	0.6	0.9	0.6	1.9 *
	60+	5.1 ***	0.7	1.0	0.6 *	2.1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5 ***	-	0.9	0.8	0.8
	3	0.4 ***	-	0.9	0.7	0.6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1.5 *	2.2 ***	0.3	1.9 ***	1.9 ***
	이혼	1.0	4.4 **	0.9	1.1	6.0 **
	사별	1.7	1.9	1.5	1.2	2.5 **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1.0	1.1	0.6 **	1.0	1.0
	하상	0.7	0.9	0.6 **	0.9	1.0
	하	1.2	0.7	0.6	1.1	1.0
종교	무종교	1.3	0.6 ***	1.5	비해당	3.7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1.0	비해당	0.9	1.2	1.5
	불교	1.0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1.1	0.6	1.0	1.9	1.2
종교참여		1.0	1.3	1.1	1.2	1.1
종교의미		1.4 ***	1.2	1.4 ***	1.3 **	1.2 *
카이제곱		190.9	43.4	47.9	28.4	75.6
자유도		19	15	18	17	18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도 세대간 급격한 가치관 변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 가족가치 2: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치

1. 결혼

한국에서는 모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또 실제로도 40 세 이
를 때까지 90%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한번은 결혼을 한다 반면에 스웨덴은 남녀
가 결합하는 방으로 결혼이란 사회적 제도대신 동거를 택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
로 가장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가치와 행위는 사회에
따라 매우 다르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란 사회적 제도가 낡은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부표 2>를 보면 “결혼은 낡은 제도다”라는 진술에 찬성한 비율이 한국은 15.4%,
일본은 12.4%, 미국은 10.5%, 스웨덴은 16.4%, 그리고 브라질이 29.5% 를 나타내
고 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응답자의 20% 미만이 결혼이
낡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대신 동거를 택해서 남녀가 결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스웨덴에서도 결혼을 낡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겨우 16.4% 에 불
과하다. 스웨덴인들은 결혼이 낡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혼대
신 동거를 많이 택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아직도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결
합시켜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각 국가별로 여러 독립변수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다음 <표 2>가 보여주고 있다.

18) Waite, Linda J.(ed.),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NY: Aldine de Gruyter, 2000).

<표 2> “결혼은 낡은 제도다”에 찬성한 오즈비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0.6 ^{***}	0.8	0.8	1.6 [*]	0.7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1.3	0.9	1.1	0.8 ^{***}	1.3
	40-49	0.8	0.7	0.8	0.7	2.3 ^{***}
	50-59	0.6	0.8	0.7	0.7	1.3
	60+	0.2 ^{**}	0.9	0.7	0.5 [*]	1.5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8	-	0.9	0.9	0.6 ^{***}
	3	0.6 [*]	-	0.6 ^{**}	0.7	0.6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6 ^{**}	0.8	0.5 ^{***}	0.7	0.6 ^{***}
	이혼	2.5	0.4	1.1	1.1	1.2
	사별	0.7	1.7	0.6	1.5	1.0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1.2	1.3	2.1 ^{***}	1.2	0.6 ^{**}
	하상	1.4	1.7	1.9 ^{***}	1.3	0.9
	하	1.7	3.4 ^{**}	3.2 ^{***}	1.1	0.3 ^{**}
종교	무종교	0.9	1.0	1.5	비해당	0.3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1.1	비해당	1.0	3.0 ^{***}	0.9
	불교	1.0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0.9	0.4	0.6 [*]	1.3	0.7
종교참여		1.0	0.6 ^{**}	0.7 ^{***}	0.9	0.6 ^{***}
종교의미		0.9	1.0	1.0	0.8 ^{**}	0.9
카이제곱		48.6 ^{***}	22.0	94.4 ^{***}	60.7 ^{***}	109.1 ^{***}
자유도		19.0	15.0	18.0	17.0	18.0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먼저 성별로 각 국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보면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은 낡은 제도”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은 낡은 제도”라는데 찬성하는 오즈는 40%나 적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찬성하는 오즈는 30%나 적다 즉 여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남성보다 덜 선호하는 셈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은 낡은 제도”라고 선택한 오즈가 1.6 배나 된다.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 스웨덴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낡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별 차이에 비해 연령별로는 모든 국가에서 뚜렷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5 개국 가운데에서 한국은 비록 통계적인 유의도가 모두 확보되지는 않지만 연령이 감소할수록 일관되게 “결혼은 낡은 제도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오즈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다른 4 개국의 경우 한국처럼 연령과 결혼에 대한 태도 사이에 일관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준거범주인 초등학교 학력 사이에, 브라질에서는 초등학교 학력과 그 이상의 학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오히려 결혼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는 태도가 더 강하다.

종교별로도 결혼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천주교인이 준거범주인 기독교인보다 결혼은 낡은 제도라는 태도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종교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가 클수록 결혼이 낡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일본, 미국, 브라질 등에서 종교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결혼이 낡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난다.

2. 이혼

결혼에 대한 태도에 여러 독립변수별로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이혼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의 비교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결혼은 낡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한 번 이루어진 결혼은 영속되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비율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다 약간 낮지만 브라질도 이혼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부정적이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각각 24.3%, 22.7%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 비하면 4개국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스웨덴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매우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스웨덴의 경우 오직 6.2%의 응답자만이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¹⁹⁾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하면 부정적인 입장에 무려 37% 포인트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혼에 대한 태도에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부표 4 참조). 이혼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가 큰 만큼 독립변수별로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3>을 보자

성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여성은 남성들보다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남성이 더 이혼을 원하기보다는 여성이 교육, 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해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5개국 가운데는 이혼에 대해 가장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스웨덴만이 이혼에 대해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령별로 이혼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국가는 한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혼에 대한 연령의 차이가 한국과 브라질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양국에서 이혼에 대한

19) 필자는 결혼에 대한 가치를 다룬 TV 기획물을 본 적이 있다. 이 때 TV에서 스웨덴의 경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스웨덴의 한 가족문제 전문가가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불행한 결혼을 청산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혼에 대해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사회는 나머지 사회와 매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50대 이상과 그 이하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에서 나이 든 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표 3> 이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상수		6.91 ***	6.06 ***	8.55 ***	8.94 ***	7.06 ***
성	남성	-0.49 ***	-0.41 **	-0.57 ***	-0.20	-0.59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0.18	-0.24	0.34	0.27	0.45 *
	40-49	-0.07	-0.38	0.41 *	0.30	0.75 **
	50-59	-0.64 **	-1.42 ***	0.06	0.09	1.15 ***
	60+	-1.44 ***	-1.68 ***	-0.03	-0.25	1.70 ***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56 ***	-	0.27	0.39 **	0.87 ***
	3	1.04 ***	-	0.64 ***	0.67 ***	1.74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78 ***	0.64 *	-0.34 *	-0.27	-0.67 ***
	이혼	0.66	1.20	0.57 **	0.52	1.49 ***
	사별	-0.87 *	-0.25	-0.35	-0.89 **	0.20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0.13	-0.13	-0.01	-0.24	0.43
	하상	-0.06	0.22	-0.06	-0.04	0.18
	하	-0.02	0.30	-0.31	-0.13	0.99
종교	무종교	-0.86 ***	0.54 ***	-0.09	비해당	-1.39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0.08	비해당	-0.16	-0.13	-0.46
	불교	-0.04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0.02	0.02	-0.01	-1.72 ***	-0.52
종교참여		-0.53 ***	0.11	-0.62 ***	-0.12	-0.60 ***
종교의미		-0.44 ***	-0.22 *	-0.57 ***	-0.54 ***	-0.38 ***
R 제곱		0.16	0.10	0.15	0.15	0.11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매우 강하다. 한국, 일본, 브라질에 비해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이혼에 대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이혼에 대해 유의미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에서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준거범주인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미국과 스웨덴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보인다.

종교별로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브라질에서는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이혼을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에서는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 이외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종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분석 대상 5개국 모두에서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높을수록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혼에 대해 성, 연령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스웨덴에서도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강하다고 응답할수록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브라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각 사회마다 여러 요인에 따라 다시 한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사회에서는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에 의한 차이가 여전히 유의미한 반면 스웨덴과 같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사회에서는 성, 연령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서는 스웨덴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VII. 가족가치 3: 자유로운 성, 매춘 및 동성애에 관한 가치

이 절에서는 성에 관한 가족가치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자유로운 성에 대해 어

떤 태도의 차이가 보이는지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자.

1. 자유로운 성

어느 사회에서나 성에 대한 규범이 존재한다. 누구와 언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사회마다 규범이 다 다르다. 한국의 경우에도 성에 관한 엄격한 도덕과 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성의 실천이 성규범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성규범과 성의 실천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실제로 성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물어 본 설문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혼전, 혼외 성관계를 모두 포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자유로운 성에 관한 태도를 물어보고 있다.

자유로운 성에 관해서 한국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8%의 응답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일본도 39.5%가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응답자의 9.6%만이 자유로운 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브라질은 오직 2.2%의 응답자만이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부표 5 참조).

이처럼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함께 분석하기 어려운 미국을 제외한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과 스웨덴이 비슷한 정도로 자유로운 성에 대해 무척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로운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각 국가 내에서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음 <표 4>를 보자.

성별로 보면 분석대상 4개국 모두에서 자유로운 성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직 한국에서만 일관성이 있는 태도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유로운 성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강해진다. 60대의 경우 준거범주인 20대에 비해 자유로운 성에 반대하는 오즈가 4배나 높다. 그러나 일본, 스웨덴, 브라질에서는 연령에 따라 자유로운 성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오직 한국에서만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준거범

주인 초등학교 학력의 응답자에 비해 0.1 유의도 수준에서 자유로운 성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가 보일 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는 종교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성에 대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생에서 종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종교가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표 4>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오즈비

변수		한국	일본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0.9	1.0	0.8	1.5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1.5 ^{**}	0.8	0.9	0.4
	40-49	2.0 ^{***}	0.9	0.7	0.7
	50-59	3.0 ^{***}	0.4 ^{***}	0.6	0.6
	60+	4.1 ^{***}	0.7	0.7	0.2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2	1.0	-	0.9	0.5
	3	1.4 [*]	-	1.1	1.1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1.7 ^{***}	0.6 [*]	0.6 [*]	2.4
	이혼	0.4	0.8	1.1	2.8
	사별	3.3 ^{**}	0.9	0.6	2.8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1.1	1.2	0.7	2.9
	하상	0.9	1.2	0.6	3.6
	하	1.3	1.1	0.7	10.3 [*]
종교	무종교	1.4	1.0	비해당	2.0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1.0	비해당	1.3	0.7
	불교	1.0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기타	1.0	1.0	0.7	1.2
종교참여		1.1	0.9	1.1	1.0
종교의미		1.2 [*]	0.8 ^{**}	0.8 [*]	1.3
카이제곱		119.4 ^{***}	53.1 ^{***}	20.8	15.2
자유도		19.0	15.0	17.0	18.0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오즈가 20% 정도 더 높다. 반면에 일본과 스웨덴에서는 종교가 인생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유로운 성에 대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을 때 사회마다 뚜렷한 태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인 태도의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태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따른 차이도 우리가 가정한 방향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매춘

매춘은 사랑하는 사람과 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유로운 성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이다. 사랑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성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매춘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매춘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다. 자유로운 성에 대해 무척 긍정적인 입장을 지녔던 브라질에서도 매춘에 대해서는 78.5%가 반대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54.3%가 반대하고 있다. 자유로운 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던 한국에서는 매춘에 대해 78%가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부정적으로 81.5%가 매춘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도 75.9%가 매춘에 반대하고 있다(부표 6 참조).

매춘에 대한 각 사회마다 태도의 차이는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매춘에 대해 찬성 또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매춘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춘에 대한 반대의 태도가 일관성있게 강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

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보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일관성있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브라질에서는 연령에 따라서도 매춘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 5> 매춘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상수		3.13 ***	2.05 ***	4.73 ***	4.12 ***	3.04 ***
성	남성	0.77 ***	1.04 ***	0.28 ***	0.60 ***	-0.01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0.29	-0.25	-0.14	0.06	0.07
	40-49	-0.35	-0.58 **	0.25	-0.09	0.32
	50-59	-0.88 ***	-0.81 ***	-0.11	0.21	0.39
	60+	-1.50 ***	-1.35 ***	-0.35 *	-0.57 *	0.05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05	-	0.29 *	0.15	0.40 **
	3	0.13	-	0.74 ***	0.13	0.60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58 ***	0.21	-0.32 **	0.20	0.01
	이혼	-0.67	0.32	-0.07	0.73	0.23
	사별	-0.42	0.23	-0.40 *	-0.34	-0.12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0.07	0.10	-0.15	0.35 *	-0.17
	하상	-0.07	0.26	-0.15	0.13	-0.08
	하	0.33	0.40	0.03	0.45	-0.43
종교	무종교	-0.29	0.05	0.45 ***	비해당	-1.15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0.08	비해당	0.45 ***	0.39	-0.13
	불교	0.04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0.04	-0.00	0.12	0.04	0.03
종교참여		-0.07	0.02	-0.25 ***	-0.29	-0.25 **
종교의미		-0.17 **	-0.08	-0.61 ***	-0.25 **	-0.10
R 제곱		0.13	0.11	0.19	0.06	0.03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교육 수준으로 나누어보면 미국과 브라질에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춘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이나 스웨덴에서는 매춘에 대해 교육 수준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우 준거범주인 개신교인에 비해 무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매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준거범주인 개신교인에 비해 무종교인이 오히려 매춘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매춘에 대해 종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를 통제했을 때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클수록 그리고 종교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매춘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종교의 참여도에 따라서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유지하면서 종교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매춘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며, 한국, 미국, 스웨덴에서는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강할수록 매춘에 반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3. 동성애

최근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적인 결합양식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동성으로 이루어진 부부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계속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지만²⁰⁾ 동성애는 다른 여러 가치와 함께 문화전쟁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허용하자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다²¹⁾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사회마다 편차가 크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비율이 18.7%에 불과하다. 그 외의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미국의 경우 55.3%가 반대하고, 일본은 57.5%가 반대한다. 브라질은 65%가 반대하고 있다. 5개국 가운데에서는 한국의 반대율이 가장 높다. 응답자의 81%가 동

20) Loftus, Jeni, "America's Liberalization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1973 to 1998,"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5(2001), pp. 762-782.

21) Hunter, James D.,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Basic Books, 1991).

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부표 7 참조).

각 사회별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타이가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

<표 6> 동성연애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상수		3.37 ^{***}	5.51 ^{***}	8.19 ^{***}	8.27 ^{***}	4.57 ^{***}
성	남성	-0.17	-0.16	-1.27 ^{***}	-1.13 ^{***}	-0.74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0.58 ^{***}	-1.20 ^{***}	-0.14	0.06	-0.02
	40-49	-0.52 ^{**}	-2.07 ^{***}	0.10	-0.44	0.38
	50-59	-0.80 ^{***}	-2.98 ^{***}	0.11	-0.78 ^{**}	0.64 [*]
	60+	-0.93 ^{***}	-3.04 ^{***}	-0.37	-1.57 ^{***}	-0.20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15	-	0.69 ^{***}	0.65 ^{***}	0.33
	3	0.58 ^{***}	-	1.67 ^{***}	1.69 ^{***}	1.06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46 ^{**}	0.20	-0.57 ^{**}	0.23	-0.57 ^{***}
	이혼	-0.37	-0.13	-0.57 [*]	0.16	-0.10
	사별	-0.69 [*]	0.43	-1.02 ^{***}	-1.09 [*]	-0.65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0.06	-0.05	-0.26	-0.25	0.05
	하상	0.17	0.21	-0.39 ^{**}	-0.88 ^{***}	0.02
	하	0.24	0.55	-0.43	-0.19	-0.34
종교	무종교	-0.08	0.26	0.38	비해당	-2.03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0.11 [*]	비해당	0.81 ^{***}	0.89 ^{**}	-0.36
	불교	0.01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0.02	0.13	0.32	-2.50 ^{***}	-0.04
종교참여		-0.05	-0.14	-0.52 ^{***}	-0.30	-0.30 ^{**}
종교의미		-0.24 ^{***}	-0.10	-0.95 ^{***}	-0.13	-0.04
R 제곱		0.11	0.17	0.25	0.22	0.06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본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브라질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도를 유지하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드러난다. 양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도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그 이하의 연령층 사이에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이 든 층에서는 젊은 층에 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가 스웨덴에서도 관찰된다. 반면에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가 관찰된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성애를 찬성하는 경향이 <표 6>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종교별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준거범주인 개신교인에 비해 천주교인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준거범주인 개신교인에 비해 천주교인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기타종교인들이 개신교인보다 동성애에 더 부정적이다. 브라질에서는 준거범주인 개신교인보다 무종교인들이 동성애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종교의 참여도와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따라서 동성애에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종교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종교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클수록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종교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향이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니고 나타나며, 한국과 미국에서는 인생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가 클수록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VIII. 가족가치 4: 여성의 일에 관한 가치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가족내 성분업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은 더 이상 가족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여성들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50%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가족 밖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가치관은 크게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에
찬성한 오즈비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2.1 ^{***}	1.1	1.4 ^{**}	1.1	1.8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1.5 ^{**}	0.8	1.1	3.0 [*]	1.3
	40-49	1.8 ^{***}	1.0	1.2	3.6 ^{**}	1.3
	50-59	3.0 ^{***}	1.7	1.7 [*]	3.5 ^{**}	1.0
	60+	4.1 ^{***}	1.5	3.0 ^{***}	4.7 ^{***}	1.0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6 ^{**}	-	0.8	0.4 ^{***}	0.4 ^{***}
	3	0.6 ^{**}	-	0.4 ^{***}	0.2 ^{***}	0.1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2.0 ^{***}	2.1 ^{**}	1.1	1.0	1.1
	이혼	1.1	1.1	0.4	1.4	1.0
	사별	3.0 ^{**}	2.9 ^{**}	1.4	1.3	0.8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1.1	0.8	1.3	1.2	0.9
	하상	0.9	0.9	1.2	0.9	0.8
	하	0.9	1.0	2.4 ^{**}	1.9	0.4 [*]
종교	무종교	0.7	0.8	0.9	비해당	0.4 [*]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0.9	비해당	0.9	0.9	1.3
	불교	0.9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1.1	1.1	1.0	2.2	1.6 [*]
종교참여		1.0	1.3 [*]	1.2 [*]	1.7 [*]	1.1
종교의미		1.0	1.1	1.1	1.0	1.3 ^{**}
카이제곱		189.8 ^{***}	61.2 ^{***}	145.2 ^{***}	61.8 ^{***}	132.8 ^{***}
자유도		19	15	18	17	18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이 절에서는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가 희소할 때 남성과 여성 중 누구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전업주부도 일을 하는 여성의 직업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분석하면서 여성의 일에 관한 가족가치를 검토하려고 한다.

1. 희소한 일자리와 여성의 일

남성이나 여성을 불문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풍부하다면 여성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훨씬 약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사람들은 경쟁을 한다. 남성위주의 사회에서는 한정된 일자리의 배분을 두고 성차별적인 분배가 일어난다.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에 한국은 42.8%가 찬성하고 있다. 브라질은 35.6%가 찬성하고 있고, 일본도 33%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21.2%가 찬성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오직 7.7%만이 찬성하고 있다(부표 8 참조). 이처럼 일자리가 희소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성이 있다는 태도에 국가간 차이가 크다. 각 국가별로 여러 요인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음 <표 7>을 보자

“일자리가 귀할 때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남성들은 이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가 여성들의 오즈의 2배나 된다. 브라질도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 찬성하는 오즈가 1.8배나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이 문항을 선택하는 오즈가 40%나 높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위의 명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한국과 찬성하는 경향이 가장 낮은 스웨덴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난다. 한국이나 스웨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먼저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준거범주인 20대에 비해 60대 이상은 이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가 4.1배이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4.7 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보다 남성에게 일자리를 먼저 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로짓계수에 통계적인 유의도가 없다. 반면에 미국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그 이하의 연령층과 통계적으로 구분되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를 먼저 부여받아야 한다는 태도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관성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통계적인 유의도를 지니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를 분배하는데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일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태도에 종교적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인생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등에 따라라도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브라질에서만 인생에서 종교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먼저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2. 전업주부

“주부의 역할은 직장의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명제는 소위 전업주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명제이다.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집 밖에서는 전혀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후 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지표를 작성하는데 전업주부의 노동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부의 역할도 직장의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명제에 일본과 한국은 각각 89.5%, 88.9%가 찬성하여 매우 높은 찬성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81.3%가 찬성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브라질은 한국, 일본, 미국에 비해 찬성율이 낮지만 그래도 각각 65.9%, 60.9%가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9 참조). 각 사회별로 여러 요인에 따라 전업주의 역할에 대해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표 8>을 통해 살펴보자.

<표 8> “주부의 역할은 직장의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에 찬성한 오즈비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0.6 **	0.9	1.2	1.1	1.6 ***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1.4	1.0	0.7 *	1.1	0.9
	40-49	1.1	0.7	0.8	1.0	1.5 *
	50-59	1.2	1.0	1.4	1.6 *	1.5 *
	60+	1.1	1.2	1.3	1.5 *	2.0 **
교육	1	준거범주	-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1.8 **	-	0.7	0.6 **	0.8
	3	2.0 **	-	0.8	0.5 ***	0.4 ***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1.1	1.8	1.4	1.0	1.2
	이혼	1.0	2.0	1.3	0.6	1.0
	사별	0.4	4.0	1.5	0.9	1.1
계층의식	상, 중상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중하	1.0	1.2	0.9	0.7 **	1.0
	하상	1.2	0.8	1.3	1.0	0.8
	하	0.8	1.3	3.6 **	1.0	0.8
종교	무종교	1.1	1.0	1.2	비해당	1.3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천주교	1.1	비해당	0.9	1.1	1.3
	불교	1.2	준거범주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1.1 *	0.6	0.8	1.1	1.5
종교참여		0.7	1.5 *	1.3 **	1.2	1.1
종교의미		1.3 **	1.0	1.1	1.0	1.0
카이제곱		36.9 ***	16.3	42.3 ***	31.0 **	64.9 ***
자유도		19	15.0	18.0	17.0	18.0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성별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한 태도가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전업주부의 역할을 부정적 혹은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위의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는 40%나 적다. 반면에 브라질에서는 남성들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성들이 위의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는 여성들의 오즈보다 60%나 더 높다. 일본, 미국, 스웨덴에서는 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전업주부의 역할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스웨덴과 브라질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는 준거범주인 20대가 찬성하는 오즈의 2배나 된다.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사회마다 태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준거범주인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위의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가 2배나 된다. 반면에 스웨덴과 브라질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브라질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의 명제에 찬성하는 오즈는 준거범주인 초등학교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찬성하는 오즈보다 60%나 낮다.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한 종교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5개국이 모두에서 종교에 따라 전업주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가 또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서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는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업주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반면에 미국인들은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업주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X.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가치에 관한 몇가지 측면을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

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다.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 개국을 선택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의 분석을 통해 각 사회별로 가족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가설에 따라 각 사회내에서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가족가치가 사회마다 매우 차이가 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아주 놀랍게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부모의 희생보다는 부모 자신의 삶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혼 및 이혼, 자유로운 성, 매춘, 동성애 등 여러 쟁점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가치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느 문항이든지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다른 어느 사회에 비해서도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 스웨덴의 경우 많은 문항에서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견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가족가치는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 가족가치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잉글하트가 주장하듯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가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도 사회마다 매우 편차가 크다. 특히 가족에 관한 한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우세하다.

잉글하트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 가치, 특히 종교의 영향이 지속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잉글하트의 논의와 필자의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종교 및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 등에 따라 가족가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생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는 단순히 종교에 따른 가족가치의 차이보다 더 뚜렷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서는 종교의 차이보다도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족가치의 차이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가치를 비롯한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고, 그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쌓여야 본격적인 가치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특수한 가치관의 모습을 올바르게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가치관에 관한 동서양의 비교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어수영,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은기수,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은기수·노희정·하현애, 「안락사·낙태·자살과 종교: 세계 5개국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001.
- 이혜정·은기수, 「종교적 배타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001.
- Coontz, Stephanie,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1992.
- Furstenberg, Jr. Frank F., J. Brooks-Gunn and S. Philip Morgan, *Adolescent Mothers in Later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Goldscheider, Francis and Linda J. Waite, *New Families, No Famil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Hochschild, Arlie,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1989.
- Hunter, James D.,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2000).
- Lofthus, Jeni, "America's Liberalization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1973 to 1998."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5(2001).
- Popenoe, David,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8.
- Skolnick, Arlene S., *Embattled Paradise: The American Family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Basic Books, 1991.
- _____. Jerome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 Ninth Edition*. New York: Longman, 1997.
- Stacey, Judith,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0.
- _____,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 Boston: Beacon Press, 1996.
- Thome, Barrie,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2.
- Waite Linda J.(ed.),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NY: Aldine de Gruyter, 2000.

● 투고일 : 2004. 4. 6.

● 심사완료일 : 2004. 8. 23.

● 주제어(keyword) : 가족가치(Family Values), 물질적 가치(Materialistic Values),
탈물질적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s), 종교(Religion)

<부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성	남성	49.0	49.3	49.7	51.0	49.8
	여성	51.0	50.7	50.3	49.0	50.2
연령	-29	34.6	17.8	16.4	24.4	40.8
	30-39	25.9	18.3	22.0	19.4	25.0
	40-49	20.2	27.4	19.2	19.9	17.3
	50-59	14.2	17.7	11.4	16.5	9.8
	60+	5.1	18.8	31.0	19.8	7.1
교육	1	23.6	-	13.5	26.2	31.1
	2	39.9	-	46.0	44.3	56.6
	3	36.6	-	40.5	29.5	12.4
결혼상태	미혼	28.2	18.7	15.0	20.4	32.7
	유배우	67.9	76.2	65.3	69.8	57.1
	이혼	1.3	1.9	7.9	5.5	3.5
	사별	2.7	3.2	11.8	4.4	6.7
계층의식	상, 중상	30.4	15.9	34.8	28.8	10.7
	중하	49.9	51.9	27.3	39.5	50.4
	하상	13.2	25.7	35.1	21.7	35.8
	하	6.6	6.5	2.9	10.1	3.1
종교	무종교	39.1	61.0	19.4	비해당	12.0
	개신교	17.6	비해당	36.1	85.8	3.5
	천주교	12.8	비해당	25.3	7.9	70.1
	불교	26.8	32.4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3.8	6.6	19.1	6.3	14.5
N		1247	1004	1475	873	1139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2> “부모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를 선택한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49.5	56.2	83.9	72.0	81.7
성					
남성	51.1	55.8	82.8	73.2	83.0
여성	48.0	56.6	85.0	70.8	80.4
연령					
-29	29.7	44.6	78.4	75.2	74.2
30-39	46.7	64.3	89.4	65.8	85.0
40-49	60.2	58.4	85.0	71.9	86.4
50-59	69.5	54.2	79.6	73.0	88.5
60+	84.4	57.9	83.7	73.4	92.5
교육					
1	74.1	-	83.9	74.1	87.0
2	44.9	-	83.7	71.4	80.2
3	38.9	-	84.1	70.5	75.4
결혼상태					
미혼	29.1	39.1	79.2	66.0	71.0
유배우	57.2	59.7	85.1	74.4	86.1
이혼	37.5	64.7	78.8	61.8	94.9
사별	75.8	58.6	86.3	75.0	89.6
계층의식					
상, 중상	45.8	60.8	87.5	73.4	77.7
중하	49.3	58.6	81.3	73.8	81.7
하상	50.0	52.1	82.6	71.0	82.6
하	68.3	48.1	79.5	71.6	80.0
종교					
무종교	44.7	50.0	81.6	비해당	71.5
개신교	50.0	비해당	84.7	71.3	92.5
천주교	50.3	비해당	84.1	69.2	82.9
불교	54.3	66.5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63.0	60.5	84.4	85.7	81.9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3> “결혼은 낡은 제도이다”에 찬성한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15.4	12.4	10.5	16.4	29.5
성	남성	12.4	10.7	10.4	12.4	27.6
	여성	18.2	14.0	10.7	18.2	31.5
연령	-29	18.4	16.3	16.0	21.7	26.6
	30-39	18.5	11.3	12.0	17.2	27.3
	40-49	13.1	10.1	10.0	15.0	41.4
	50-59	10.2	12.3	7.5	14.9	24.8
	60+	3.1	12.9	8.1	12.0	31.3
교육	1	15.0	-	15.2	18.0	36.7
	2	16.5	-	12.2	18.3	26.4
	3	14.5	-	7.3	12.7	26.2
결혼상태	미혼	19.9	16.0	19.4	23.3	32.2
	유배우	13.1	11.4	8.0	14.1	26.0
	이혼	43.7	12.5	18.8	20.8	47.5
	사별	12.1	16.0	9.0	16.7	37.3
계층의식	상, 중상	13.5	6.8	5.8	13.2	36.1
	중하	15.5	11.9	13.2	18.0	26.0
	하상	18.4	13.3	12.8	18.7	33.3
	하	18.3	26.7	25.0	18.1	17.7
종교	무종교	16.5	13.8	19.5	비해당	40.7
	개신교	15.8	비해당	8.7	15.1	10.0
	천주교	18.5	비해당	9.4	38.0	29.8
	불교	13.2	9.5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10.9	5.6	5.7	11.7	24.5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4>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43.3	22.7	24.3	6.2	39.6
성	남성	45.8	26.1	26.6	5.8	40.2
	여성	40.9	19.2	22.0	6.7	38.9
연령	-29	28.2	17.1	22.0	6.7	39.1
	30-39	44.4	16.5	22.1	5.8	40.6
	40-49	44.8	13.1	18.2	3.5	39.1
	50-59	63.3	32.9	23.5	6.1	42.5
	60+	78.1	37.9	31.2	8.9	35.4
교육	1	62.2	-	33.7	7.8	52.1
	2	42.8	-	24.9	7.2	36.8
	3	31.7	-	20.6	3.5	20.6
결혼상태	미혼	25.5	20.5	22.8	5.0	34.7
	유배우	50.2	22.5	24.5	6.4	44.6
	이혼	25.0	15.0	12.6	1.9	15.0
	사별	66.7	43.8	33.0	14.0	33.3
계층의식	상, 중상	39.2	24.5	21.2	2.8	41.0
	중하	41.7	21.6	23.8	6.8	37.1
	하상	50.3	22.4	26.6	6.0	42.8
	하	59.8	22.0	36.6	8.1	30.3
종교	무종교	38.5	17.7	13.5	비해당	25.6
	개신교	47.7	비해당	24.8	4.4	55.0
	천주교	49.4	비해당	29.5	4.0	40.8
	불교	45.0	28.3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47.8	31.8	27.5	33.3	42.1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5>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스웨덴	브라질
전체		48.8	39.5	9.6	2.2
성	남성	46.7	38.0	8.8	2.5
	여성	50.7	41.0	10.4	1.9
연령	-29	33.5	54.8	13.2	2.4
	30-39	49.1	44.9	10.2	1.4
	40-49	55.7	42.5	8.6	3.1
	50-59	66.1	22.4	7.5	2.7
	60+	75.0	31.9	7.4	1.3
교육	1	60.3	-	7.9	3.2
	2	43.5	-	9.1	1.6
	3	47.1	-	11.5	2.8
결혼상태	미혼	31.9	56.1	14.4	1.3
	유배우	55.2	35.4	8.1	2.6
	이혼	18.8	36.8	13.5	2.6
	사별	78.8	43.8	7.1	2.7
계층의식	상, 중상	47.1	28.9	13.1	0.8
	중하	49.3	41.0	8.8	1.9
	하상	45.4	39.8	7.0	2.7
	하	60.5	37.9	8.3	5.9
종교	무종교	46.8	43.1	비해당	2.2
	개신교	54.0	비해당	9.6	5.0
	천주교	48.4	비해당	13.7	1.9
	불교	50.5	33.2	비해당	비해당
	기타	45.7	33.9	6.6	3.0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6> 매춘에 반대하는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78.0	81.5	75.9	54.3	78.5
성	남성	71.0	73.8	69.7	48.0	77.0
	여성	84.7	88.8	81.9	60.8	79.9
연령	-29	67.8	76.8	67.8	51.9	79.2
	30-39	79.1	76.3	74.4	51.9	77.7
	40-49	81.8	80.4	68.5	54.7	75.4
	50-59	87.6	84.5	78.4	49.1	78.6
	60+	100.0	89.6	84.9	63.8	84.6
교육	1	88.4	-	86.2	55.3	84.6
	2	77.7	-	78.9	52.7	76.2
	3	71.7	-	69.0	55.4	73.8
결혼상태	미혼	64.7	79.3	64.7	54.3	78.4
	유배우	83.0	81.8	76.7	53.3	78.5
	이혼	81.3	85.0	70.2	46.9	72.5
	사별	93.9	84.4	89.8	77.3	82.4
계층의식	상, 중상	76.1	82.2	74.7	52.5	76.2
	중하	77.9	84.1	75.0	52.2	78.1
	하상	80.5	76.9	78.4	53.6	78.9
	하	82.9	80.3	78.1	52.5	85.3
종교	무종교	76.5	80.0	57.4	비해당	72.3
	개신교	83.8	비해당	83.1	55.0	97.5
	천주교	77.1	비해당	75.9	41.3	78.8
	불교	77.3	84.1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82.6	81.5	81.3	66.1	77.9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7>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80.6	57.5	55.3	18.7	65.0
성	남성	81.2	60.3	60.0	21.7	70.2
	여성	80.0	54.8	50.6	15.6	59.8
연령	-29	67.1	30.3	43.5	13.9	62.5
	30-39	84.2	45.1	51.3	12.4	66.0
	40-49	85.7	55.1	52.2	16.3	64.4
	50-59	93.8	79.0	56.5	21.0	62.2
	60+	96.9	78.8	66.2	32.4	81.8
교육	1	91.8	-	75.7	29.1	73.4
	2	82.4	-	58.5	18.6	63.0
	3	71.4	-	45.1	9.5	53.5
결혼상태	미혼	66.1	39.6	41.8	14.7	60.0
	유배우	86.0	61.2	55.8	18.6	68.4
	이혼	87.5	70.6	53.1	18.0	53.9
	사별	97.0	69.0	71.3	42.5	66.2
계층의식	상, 중상	78.8	60.3	52.1	12.6	63.1
	중하	81.5	57.4	54.6	16.8	64.2
	하상	79.3	55.8	59.5	25.6	66.2
	하	84.2	57.9	56.4	24.7	67.7
종교	무종교	77.4	51.3	40.1	비해당	57.4
	개신교	82.9	비해당	64.0	17.9	92.5
	천주교	76.9	비해당	48.9	5.3	65.2
	불교	85.0	68.1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84.8	58.5	63.2	45.9	63.6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8>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42.8	33.0	21.2	7.7	35.6
성	남성	50.2	33.6	22.5	8.2	40.6
	여성	35.7	32.4	19.8	7.2	30.7
연령	-29	24.1	19.7	12.5	2.5	29.3
	30-39	42.6	25.5	14.0	5.8	36.6
	40-49	50.4	30.1	14.4	8.0	41.8
	50-59	67.1	46.9	20.2	8.5	39.8
	60+	73.4	44.4	35.6	14.9	48.2
교육	1	61.6	-	33.5	16.0	54.4
	2	39.2	-	24.9	5.1	29.7
	3	34.3	-	13.1	3.8	15.6
결혼상태	미혼	22.8	17.9	14.0	5.5	29.9
	유배우	50.2	36.2	21.3	7.5	39.4
	이혼	37.5	29.4	9.2	9.6	33.3
	사별	69.7	48.4	37.4	19.1	32.9
계층의식	상, 중상	38.4	33.8	18.0	3.3	34.2
	중하	43.9	30.8	21.9	7.7	35.2
	하상	43.3	34.3	23.0	7.6	37.6
	하	54.9	33.9	35.0	19.1	23.5
종교	무종교	40.3	28.1	15.4	비해당	26.3
	개신교	41.9	비해당	23.0	7.3	20.0
	천주교	37.6	비해당	21.3	4.0	36.6
	불교	47.0	40.5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63.0	40.3	22.7	16.4	42.7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

<부표 9> “주부의 역할은 직장의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에 찬성한 비율

		(단위 %)				
변수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전체		88.9	89.5	81.3	65.9	60.9
성	남성	86.9	89.2	81.9	67.3	66.2
	여성	90.9	89.7	80.7	64.6	55.8
연령	-29	89.4	86.7	79.7	60.3	56.4
	30-39	91.6	89.9	75.2	62.3	55.5
	40-49	88.1	87.3	78.4	63.2	67.5
	50-59	86.9	90.6	86.1	71.8	70.3
	60+	81.3	93.6	86.3	74.6	77.9
교육	1	83.2	-	86.5	75.4	69.3
	2	90.5	-	80.8	63.8	60.0
	3	90.8	-	79.8	61.0	45.1
결혼상태	미혼	88.9	84.5	75.6	63.9	55.3
	유배우	89.4	90.4	81.6	66.7	64.0
	이혼	93.8	86.7	81.3	58.0	56.4
	사별	72.7	92.9	86.6	73.7	64.5
계층의식	상, 중상	90.2	88.0	79.1	65.1	57.4
	중하	89.1	90.6	79.1	60.7	62.0
	하상	88.3	86.7	83.1	69.9	60.3
	하	82.9	91.8	92.7	71.6	58.8
종교	무종교	87.5	88.7	79.7	비해당	50.8
	개신교	88.4	비해당	82.7	66.1	62.5
	천주교	91.0	비해당	80.2	63.9	62.0
	불교	90.5	91.7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91.3	86.7	80.7	69.4	63.6

자료: 1995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